

● 목 집

부활의 현대적 의미

정진경 목사
(신촌성결교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기독교는 끝고다의 종교로, 무덤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며 허위는 진리를, 증오는 사랑을, 사망은 생명을 영원히 무덤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를 무덤 속에 매장한 다음 날인 안식일은 소란하던 예루살렘거리가 죽은듯이 고요해졌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몇몇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분주히 무덤으로 달려 갔다. 저들이 찾아간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묻은 무덤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 가면서 크게 염려한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굳게 인봉한 무덤의 큰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무덤의 돌은 연약한 여인들의 손으로 움직이기에 너무도 큰 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그 돌 위에 찍은 인봉을 뗄수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을 안고 여인들이 예수를 안장한 무덤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염려했던 무덤의 돌은 뜻밖에도 이미 옮겨졌고 무덤 속에 있

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여인들의 놀람은 컸다.

무덤은 죽은 시체를 누는 곳이다. 무덤은 산자의 집이 아니라 죽은 자의 집이다. 불과 삼일 전에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이곳에 묻었고 살기 등등한 로마 병정들이 보초를 섰고,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무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의 시체는 간 곳이 없다. 이 어찌된 일인가?

여인들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주님의 생명을 빼앗긴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체마저 빼앗기다니 여인들은 불안해서 공포로 발전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주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황급히 사도들의 중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은 자세히 보고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 보고를 받은 두 사도는 지체 없이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여인들의 마음은 상할대로 상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마저 빼앗기고 사도들의 수고도 헛되어 끝나고 보니 여인들은 세상이 허무해지고 적막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무서운 죄에서 용서받은 감격

이 컸던만큼 실망도 컸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나 시체는 없었다.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런데 무덤 옆에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미 산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죽은 시체를 찾아내는 것 만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다가 서면서 왜 우느냐? 고 물었다. 여인들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또는 어느 곳에 감추어 두었는지 알게해 달라고 애원을 했다. 매이달리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인자가 반듯이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고 하신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켰다. 위의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가 죽었다

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번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빈 무덤의 사건을 전설이거나 후대 교회가 교리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다른 바 없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골고다의 종교로 무덤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며 허위인 진리를, 증오는 사랑을 사망은 생명을 영원히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증명하려고 하면 부활의 현대적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 만일 부활의 역사성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흘러간 역사 속에 묻어버릴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부활했으며 왜 부활했나 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요청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다. 예수의 부활은 오직 신앙고백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 예수의 부활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속의 은총은 비로소 현실화 되고 영원한 것이 된다.

그러면 부활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이다.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무덤 지천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수 있을까? (욥기 14 : 7-12) 의 물음은 욥기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질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무덤이요, 무덤은 인간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공통된 관념이다.

이 땅에 인간의 기원이 몇백백년으로 추산된다. 문명의 남은 기복만 떠저도 길쭉년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간에 헤일수 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남긴 자취는 무엇인가? 그들의 재산, 업적, 명성, 지위 모두 무덤 속에 남기고 갔다.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남기고 간 것은 무덤이다. 공자는 산동에 커다란 무덤을, 모하옌은 메카에 그 시체를 남기고 갔다.

오늘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사

하이데거의 말대로 죽음을 향해 서 있는 존재가 아닌가 즉 무덤을 찾아가는 행렬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무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현세에 오래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가야 할 영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다. 이는 죽음의 극복을 의미한다. 만일 그가 지금 무덤 속에 누어 있다면 지난 이천년 동안 그를 따르던 여인들 같이, 그의 제자들 같이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 자의 수가 얼마였을까?

그러나 그는 허구의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셔서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현대인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덤이 없고 죽음이 없다. 무덤 너머에 살고 죽음 저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였고 “내가 살므로 너희도 살리라” 고 하셨다. 죽음에 대한 극복은 부활이 선포하는 첫 번째의 영원한 진리이다.

부활의 두번째 의미는 현실의 악을 극복하고 정의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종교하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만 관계가 있고 현실의 문제 즉 정치니 교육이니 문화니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활의 종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여 인간 윤리는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이지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다. 살되 바르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음을 말한다.

예수가 무덤에 묻혔을 때 의는 무덤에 장사되고 불의는 승천가를 불렀던 것이다. 진리는 땅에 깊이 묻히고 거짓은 대로에 활개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단혔던 무덤은 열렸다. 무덤에 묻혔던 의와 진리는 다시 살아나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정복하고야 말았다.

오늘의 현실은 의와 불의, 참과 거짓, 광명과 암흑, 선과 악, 자유와 압제가 부단히 싸우고 있다. 때로는 허위가 진리를 이기고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오래 계속될 수 없다.

의는 반듯이 불의를 이긴다. 참은 반듯이 거짓을 이길 것이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절이 선포하는 영원한 진리이며 현대인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다.

세번째로 부활의 현대적 의미는 선교에 대한 주님의 분부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선교의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다. 이 부탁을 받은 우리의 첫째 과업은 먼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세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엄숙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은 “내가 이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만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부활절을 다시 맞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분부와 약속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우리의 선교의 비존을 우리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넓은 아세아 대륙에도 확대시킬때 예수의 부활은 현대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 이것이 부활절이 선포하는 세번째의 진리이다.

